

신체 형태 관찰방법론에 대한 비교 연구

김경철* · 신순식¹ · 류경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연구소 · 진단학교실, 1: 방제학교실

Comparative Study on the Methodology of Whole Body form Diagnosis

Gyeong Cheol Kim*, Soon Shik Shin¹, Gyeong Ho Ryu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Department of prescriptionology

For raising to the significance of whole body form diagnosis, I studied comparatively oriental medicine's whole body form diagnosis, biological evolution and physiognomy. In the oriental medicine, the whole body form diagnosis was recognized a means to deal with 'an individual physiology-pathology' and applied practically 'the typing of whole body form'. The physiognomy was applied to whole body form for the conversion of conception in social science and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face of human'. The biological evolution was applied to whole body form for the means by grasping the human individual characteristic, so much as magnified to the size of unconscious body-language(Synergologie, Tells exc.).

Key words : whole body-form diagnosis, individual physiology-pathology

서 론

신체 형태에 대한 진단은 망진법의 핵심으로써, 변증시치의 주축이 되는 개체생리병리 파악의 전통적인 방법론이다. 변증시치에서 다소간 경시되었던 망진의 중요성은 최근 사상체질과 형상론에 의하여 그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¹⁻³⁾. 신체 형태에 대한 관찰은 의학 뿐만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인간을 아는 知人法의 일환으로 인간학으로서의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래로부터 관상법은 하나의 인간학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최근 생물과학의 발전으로 생물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인간 신체의 탐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전신형태에 대한 여러 지견을 발표한 바 있다⁴⁾. 이에 좀 더 성숙한 차원의 신체 관찰의 의의와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먼저 신체 형태 관찰의 생물진화론적인 입장, 인상 또는 관상학적인 입장, 한방 망진학적인 입장의 상호 교류를 통한 신체 형태 관찰법의 '발상의 의미'에 대한 이들 상호간의 비교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인간 신체에 대한 통합적인 관찰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범위

- 1. 연구방법
 - 한의학의 전신 형태 진단법, 동양의 관상법, 생물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인간 신체의 의미를 비교 검토하였다.
- 2. 연구범위
 - 1) 한의의 전신 형태 진단법은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경, 동의수세보원, 장남과 섭천사의 의서를 중심으로 하였다.
 - 2) 동양의 관상 인상법은 그 발상과 의미 부여를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 3) 생물진화론적인 측면은 진화론적,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인간 신체형태 관찰의 의미를 범위로 삼았으며, 진화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부위별 형태와 동작의 의미를 부여하여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자세와 몸짓 등의 신체 언어의 내용의 자료를 포함하였다.

결과 및 고찰

- 1. 한의학에서의 신체 형태 望診法
 - 내경의 形態 診斷은 주로 全身 形態 望診과 局所部位 望診의 內容으로 구성되므로, 望診의 內容은 크게 有機體의 全般的인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진구 양정 2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kimkc@deu.ac.kr, Tel : 051-850-8649

접수 : 2005/08/02 · 수정 : 2005/09/04 · 채택 : 2005/09/27

狀態를 把握하는 整體的인 全身 形態 診察과 신체의 어느 한 부위를 살펴보는 局部的인 診察이 있다. 全一의인 形象의 全身 形態 望診은 患者의 形體, 動態, 形氣, 形色 등을 診察하는 것이며, 아울러 形·態·神·色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內經에서는 全身의 形態는 靜的인 形體의 관찰과 動的인 動態의 관찰 내용으로 구성되어, 形態의 陰陽的인 觀察을 이룬다.

그리고 內經에 나타나는 全身의 形態 分類는 크게 두 가지로 區分된다. 하나는 陰陽說에 根據한 것이다. 사람의 體質, 形態, 性情 등이 陰陽氣 稟賦의 不同에 根據한다는 것으로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의 五分類로 나뉘어 生理 特徵 등을 說明하고 있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先天的으로 稟賦된 不同的 各種 形體를 五行學說에 根據하여 木火土金水의 五類로 歸納 整理하고서, 다시금 五音의 太少의 屬性으로써 上下左右의 再區分으로 二十五 種類의 同中求異의 類型을 求하는 것이다. 이같은 體型 區分의 內容은 상당히 복잡하나, 一目瞭然하게 整理하는 歸納 綜合的인 陰陽 五行의 方法으로 再構成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陰陽五行論을 根據로 곁으로 나타난 陰的인 形과 動的인 態를 관찰하여 臟腑 性理에 따른 내면을 연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먼저 陰陽 多少의 五態人의 內容은 靈樞 通天篇에 나타나는 것으로 東武 李濟馬의 四象體質論 思考의 시초가 되어 類型 體質論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¹⁾. 한의학은 원래로 氣의 自發的인 自己 代謝를 중시하여 생명체를 관찰하는 관계로 個體의 특수한 개체 생리, 개체 병리를 인정하고서 의학 체계를 형성하였다²⁾. 따라서 韓醫學은 원래로 體質醫學이며³⁾,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病因을 합친 辨證施治의⁴⁾ 당위성과 방법론이 성립된 것이다. 이로 볼 때 東武 先生의 類型 體質論은 辨證의 活用化의 효과를 증가시킨 것으로서, 개체 생리와 병리의 類型化 및 辨證의 類型을 가져온 더욱 더 발전한 한의학인 것이다⁵⁾. 따라서 이런 個體의 特性을 기반으로 하여 診斷과 治療의 類型化를 시도한 의학 정신은 內經과 東醫壽世保元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는 한 측면이 된다. 陰陽 多少에 의한 全身 形態 類型의 區分을 內經에서는 心

理的인 측면과 形態的인 특징에 따라서 五類型으로 보고 있으며⁶⁾, 각 類型 別로 特性, 陰陽 多少, 形態를 다루고 있다⁷⁾. 특히 陰陽의 多少는⁸⁾ 稟賦된 바로 天稟之純陰(太陰), 多陰少陽(少陰), 純陽(太陽), 多陽少陰(少陽), 并陰陽和平으로 나뉘어진다⁹⁾. 이 五態人의 內容은 陰陽 二十五人의 五行의 성질과는 다른 것으로 五行으로 감별하기 어려운 것을 陰陽 多少의 五態人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五行 類型 體質과 二十五人의 內容은 靈樞 陰陽 二十五人편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오행 학설에 근거하여 稟賦가 不同한 各種의 體形을 오행의 5類型으로 귀납한 이론이다. 五行 性質의 사람을 다시 手足의 陰陽 經脈의 上下의 血氣 상태에 따라 25種의 類型으로 구분하고 외견상의 특징인 피부색, 체형, 태도, 시령의 적응에서 그 사람의 성질을 診斷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張介賓 先生이曰 “五行者 以臟爲主而言其稟, 六陽者 以腑爲表而言其形, 稟質相合, 象變斷具矣, 此所以有左右上下之分也”라고¹⁰⁾ 하였다. 五行의 氣運을 각각 溫全하게 받은 사람이 있으며, 또한 偏僻되게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게 되므로, 四肢의 左右와 上下의 經脈 氣血 多少에 따라 다시금 구분한 것으로서 同中求異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오행의 全偏之分으로 구분하는데, 5型的 偏者가 各各 4이니 左之上, 右之上, 右之下, 左之下를 말하고 있다. 즉, 五臟 中心으로 五 類型을 판단한 후에, 三陰經으로 五體質類型의 畝分을, 그리고 三陽經의 外見上의 특징으로 五行 偏者를 구분지워 二十五人을 파악하는 것이다¹¹⁾. 이런 생리 특징의 유형에 따라 변증시치, 질병발생의 양상, 양생과 임상치료 등이 다르게 활용되고 이에 대한 이치를 터득함에 의술이 막힘이 없게 된다. 즉 변증시치와 형상론의 합일을 이루게 된다¹²⁾.

1) 東武는 동의수세보원에서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而 略得外形未得臟理 蓋 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而 未盡精究也”라 하여 자신의 연구의 시단을 밝히고 있다. 이로 보아 내경과 동의수세보원의 연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慮된다.

2) 윤길영, 동의학방법론 연구, 성보사, 1983, p. 23, 36, 57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방 생리와 병리의 특징을 규정한 개념으로 한의학에서 체질과 변증의 당위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탁월한 식견이라고 생각된다.

3) 개체 생리와 병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한의학 전체가 개인의 체질(특성)을 중시하는 체질 의학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운기체질, 사상체질 등은 유형체질의학의 한 분야가 되는 것이다. 한방 이론과 임상 의의의 괴리성을 주장하는 부류나 변증과 체질을 상이성을 주장하는 부류는 한의학과 개체생리, 병리 및 체질론의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변증의 정신은 한의학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야이다. 실증적이고 사실 위주의 증거주의의 정신이며, 인간 개체의 특성과 병인의 합리적인 분석을 추구하는 뛰어난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개체적인 생리, 병리의 특성을 관찰하는 방법론의 결과물인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과학적인 의학 방법의 발달로 형성된 미신적이고 현대의학에 뒤떨어지는 방법이 아닌 것이다.

5) 변증의 실제적인 활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 어려움은 해당 환자에게 알맞는 변증의 적용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변증 적용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형상의 방법이 있는데, 사상체질도 결국 취상의 법을 활용하는 형상의학¹⁾으로 변증과 형상의 합일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6) 전신 형태의 유형 구분의 정신은 한의학의 연구방법론인 비류취상의 방안에서 유래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런 전일적인 취상의 정신은 동의수세보원에게도 연계되어 잘 나타나고 있다. 四象人 辨證論에서 “太陽人 體形氣像 腦作貞之起勢 盛壯而 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而 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而 腦作貞之起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而 胸襟之包勢 孤弱”이라 하여 사상 체질인의 전신 형태를 성질 재간 등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아도 국소적인 형태 진단보다는 전신 형태 진단이 더욱 우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 이 五態人은 氣의 운동 개념인 態로서 太少陰陽人의 氣의 多少를 주되게 다루고 있다. 靜的인 形 보다는 動的인 態를 상위 개념으로 여기는 것이다.

8) 여기서 음양은 陽化氣, 陰成形의 법칙으로 적용된다. 양은 팽창운동의 氣化 작용이며, 음은 인력으로 수렴 집중시키는 形化 작용이다.

9) 내경에서 陰陽和平人은 君子로 표현되는 바, 이는 平人이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형태라고 파악된다. 내경에서는 이를 음양화평의 상태로 표현한 것이며, 동의수세보원에서는 中央之太極인 心을 잘 쓰는 聖人의 양상으로써 나타나며 衆人이 추구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모두 마음 작용의 여부에 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10) 오국정, 내경진단학, 대성문화사, 서울, 1983, p. 34

11) 이는 일종의 五行 錯綜之道의 활용이라고 하겠다. 縱橫의 五行을 혼합하면 二十五의 구분이 나온다. 五行의 溫全한 기운은 陰의 臟과 經絡으로써, 偏僻된 기운은 陽의 腑와 經絡으로써 說明하고 있는데, 이는 五臟 중심으로 人體를 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된다. 즉, 類型化의 一段係는 臟의 구분이며, 이단계는 腑의 구분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생각해보면 삼단계 구분의 기준은 經絡임을 알 수 있겠으며, 아울러 사상 체질론에서의 네가지 유형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臟 중심임을 다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12) 변증과 형상 진단의 정신은 비류취상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변증 활용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형상의 응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알 수 있으며, 변증과 형상의 합일적인 통일이 바로 가장 정통적인 한의학의 정신이며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인체의 형상을 살피는 相法의 根源도 內經임을 알 수 있으며, 후대로 내려오면서 相法의 本質이 運命學的으로 變質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경에는 그 외에도 形色 相得의 興否, 五臟 六腑의 先天의인 狀態를 外見으로 이는 望診法, 外部의 身形으로 內部의 臟腑를 測知하는 법, 形氣의 平衡과 疾病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內經의 形態 體質의인 辨證論의 精神은 청대 葉桂의 臨證指南醫案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며, 後代에 그의 體質辨證論의 정신을 연구하는 論文까지 있을 정도이다. 葉桂는 治法의 總論으로 體質의 陰陽을 區分하여 寒熱虛實의 治療를 하였으며, 診斷의 大法은 먼저 體質이 강한지 약한지를 밝혀야 한다고 하여 臨床에서 體質의 重要性을 깊이 認識하고 있다. 黃煌¹³⁾은 葉桂가 지은 『임증치남의안』에서 체질 변증과 관련하여 정리를 하였다. “葉桂는 중의 특유의 팔강 장부 기혈 병인 등 변증의 기초위에서 각종 체질 유형을 귀납하였다. 이 유형에는 생리 기능상의 특성도 있고 더욱 주된 것은 병사를 받는 성질 질병의 전화 방면에서도 각자의 규율이 있다.”¹⁴⁾고 보았다. 동시에 그는 葉桂의 의안속에는 대략 6개의 주요 유형 즉 木火質 濕熱質 肝鬱質 陰虛質 陽虛質 脾弱質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葉桂는 臨床에서 나타나는 病症을 肌肉柔白, 色蒼形瘦, 面長身瘦, 形軀豐溢, 肌柔色黯 등의 形態 特徵을 함께 參考하여 稟賦된 體質의인 特徵과 病機를 결정짓고 診斷과 治療法 및 藥物 使用을 確立하였다. 이처럼 葉桂는 病證 把握에 必須의인 體質 區分의 項目으로 身體 形態 特徵, 肌肉의 堅結과 柔軟, 얼굴色과 얼굴形, 脈象 등을 꼽았으며, 이들을 첫째, 深度있는 辨證施治를 위한 體質 把握의 資料로 둘째, 疾病 轉變 規則을 把握하는 資料로 셋째, 正確한 用藥法으로 副作用을 最小化하는 方案으로 活用한 臨床의인 意義가 있다.

그리고 이런 그의 形態 診斷에 立脚한 體質辨證論은 比단 慢性的인 雜病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溫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히 濕溫病에서 患者의 體質을 중시하는데, 얼굴色이 희고 창백한 것은 많은 경우 평소 몸의 陽氣가 모자라서 다시 濕邪에 감염되면 더욱 쉽게 지치게 되고 심하면 陽氣를 손상시켜 病의 後期에는 陽氣衰微의 虛寒證이 나타나고, 患者의 얼굴에 靑蒼色이 나타나면 많은 경우는 평소 몸이 陰虛火旺한 사람으로 濕熱의 病邪에 감염된 뒤에는 비교적 쉽게 燥가 되고 陰이 손상되므로 가령 熱이 물러나고 몸이 차진 경우에 虛寒證으로 오인해서 溫補劑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평소 陽氣가 旺盛한 사람은 濕邪가 쉽게 熱로 바뀌고 대부분 病은 陽明胃로 귀속되어 임상에서 熱이 濕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평소 陰盛한 사람은 痰濕이 안에서 쌓이고 陽氣가 衰弱한 것에 치우치고 濕邪에 감염된 후에 熱로 바뀌는 과정이 비교적 느리고 많은 경우에 太陰脾에 머물러 임상에서 濕이 熱보다 강한 상황이 나타나며 病程이 발전함에 점차로 熱로 바뀌

어 濕보다 熱이 강한 轉變을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濕熱病의 發病 面에서 內外合邪를 말하면서 病變 過程中에 사람의 體質의인 差異에 따라 다른 轉化를 하여 臨床 類型이 달리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섭천사의 뒤를 이은 章楠은 葉桂의 形態 診斷에 根據한 體質 辨證論의 內容을 특히 暑病의 病證을 陰陽證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病證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患者의 體質의인 特性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 章楠은 治病의 要領은 먼저 마땅히 사람의 體質의 陰陽, 強弱을 살펴야 하는데, 이 살피는 方法의 포인트는 그 사람의 形態, 氣象, 色澤, 脈象임을 말하고, 아울러 陽旺陰虛 體質, 陰陽具盛體質, 陰盛陽虛體質, 陰陽兩虛體質 등으로 葉桂의 臨證指南醫案에 흩어져서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여, 스스로가 內經과 葉天士의 全身 形態 診斷에 立脚한 體質辨證論 精神을 이어받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韓醫에서의 신체 형태 望診法을 음양오행론적으로 분석 귀납함으로써¹⁵⁾, 병증과 개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론으로 이용되어 왔고, 편리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내경이래로 형태 파악의 유형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수세보원의 사상체질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아울러 변증시치의 임상방법론에서 병증 변별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활용되었다.

2. 인상 관상법에서의 형태 관찰의 의미

사람은 천지 음양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니 가볍고 청정하고, 무겁고 혼탁한 형체를 받으며, 비록 떳떳한 오륜의 기운을 받는 근본은 같으나 얼굴과 용모가 달라지게 된다. 오행을 더듬어서 그 사람의 형상을 파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잡한 것을 그 품격으로 모으게 뒀은 팔괘에 비유해서 그 기초를 열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지방 풍토의 두텁고 얇은 것은 태어난 인물의 어질고 어리석음을 낳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¹⁶⁾.

신체 형태의 체모 관측법은 자신을 아는 방법으로 건강상의 약점, 성격상의 결함을 파악할 수 있으며, 초면의 상대방도 얼굴의 생김새나 체형을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된다는 것이다. 체모 관측법은 관상 수상과 함께 체형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체형 및 안모 파악이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질병 관찰법까지 제시하고 있다¹⁷⁾. 우리 인간의 삶은 상대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알고도 모를 것이 인간이라는 점이다. 인간을 알기 위한 인간 판단법인 관상 또는 인상법은 신체밖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체형, 인상, 버릇, 동작 등에서 개개인의 성격이나 운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실증적인 방법론이다¹⁸⁾. 그 사람의 지문과도 같은 인상을 통계적으로 집약한 인상학은 신체나 동작의 실질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관찰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얼굴 형태를 관찰하는 관상 또는 인상학은 신체의 미학으로 개인적인 측면과 아울러 사회적인 측면에서 함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¹⁹⁾. 고래의 관상학이 주로 관찰당하는 피험자의 의미를

13) 黃煌, 『葉天士體質辨證探討』, 『江蘇中醫雜誌』1980: 제3권 제4기.

14) 『葉氏從中醫特有的八綱 臟腑 氣血 病因等辨證基礎上歸納出各種體質類型, 它們不僅在生理機能上有其特性, 更主要的是在受邪的性質 疾病的轉化方面亦有各自的規律.』(匡調元 著, 『人體體質學--理論 應用和發展』, 第1版 第1次印刷,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204. 에서 재인용.)

15) 형상진단의 한의화적인 접근법과 근거를 말함

16) 상리형진

17) 관상수상체형진단법

18) 한번 보고 사람을 아는 법

19) 얼굴경명

담고 있다면, 최근의 인상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 인상 관찰법에서의 형태 관찰은 그 발상의 의미가 중요하다. 관찰적인 발상은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있으며, 체계적인 뒷받침을 갖고 있다²⁰⁾. 즉, 좋은 인상은 내가 만든다는 것으로 외모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인상사회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진 인간은 모든 게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얼굴에 반영되는 것으로서, 인상은 개인 상태를 반영하는 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습이 반영되는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길흉화복을 분석하고 예견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형태에 대한 인상학은 외모의 사회적인 의미를 다루는 학문이다. 하나의 응용과학으로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도 활용되며, 인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을 위한 웰빙케어와 기업 경영방식의 일환으로도 활용된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희로애락이 신체의 근육활동에 영향하고 인간의 체상 등을 바꾼다. 인상학에서의 체상의 평가 기준은 매력과 아름다움이다. 하나의 인상학의는 다양한 인상학적 특징의 내용과 상호 연결되어 확인되며, 인상은 단순한 외형적인 특징을 넘어 인간의 마음 상태가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 인상은 그 상을 보는 관점이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사회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인상의 척도는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변한다는 사회적인 입장을 잘 이해해야만 진정한 인상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상학은 관찰학의 수동적인 운명론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미래지향적 특징을 갖고 있다. 마음의 상태를 조절함으로써 신체 밖으로 나타나는 형태적인 특징을 변화하게 된다. 마음 상태에 따른 기운의 방향성은 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의 감정은 자연스레 표현되고 동일한 표현의 반복은 인상의 유형화에 작용한다. 웃는 얼굴과 즐거운 마음에 따라 근육이 만드는 긍정적인 인상과 슬프고 불안한 마음이 만드는 부정적인 인상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또한 한 개인의 인상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 영향을 주므로 인상은 긍정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자기 자신의 몸과 정신의 관리이며 동시에 사회적 책무이다.

그런데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다. 살아있는 얼굴은 우리가 대하는 가장 중요하고 신비로운 외면이다. 얼굴은 육신의 중심이다. 얼굴로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말을 한다. 얼굴에는 다섯 개의 기본적인 감각 기관 가운데 넷이 있다. 또한 즉각적으로 나이, 성별, 인종, 건강 상태, 기분 등을 알려 주는, 자신에 대한 거울이다. 얼굴은 우리를 개체로 만들어 준다. 얼굴은 지금까지의 과학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메시지를 내보낸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매혹시킨다. 얼굴은 사회적 신분이자 나침반이며 매력을 발산하는 미끼고 우리의 사회적 우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나비가 꽃을 찾듯이 얼굴을 찾는다. 얼굴은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얼굴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사로잡는다.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태어난 지 겨우 9분밖에 되지 않은 아기도 아무 무늬 없는 패턴이나 어질러진 패턴보다 얼굴 패턴을 좋아

한다. 비슷한 이야기로, 철저히 격리된 곳에서 성장한 원숭이도 자신과 같은 종(種)의 얼굴 사진을 알아본다. 아마도 얼굴 인식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심리학자 비터 브루스는, “인간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세상에 나온다.”라고 말한다. 진짜 얼굴을 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흥미롭게도, 우리는 얼굴을 관통해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 얼굴이 책의 표지처럼 반쯤 투명해지면서 외형적인 윤곽을 지나 영혼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얼굴을 그 사람 자신처럼 대한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자 열망하며, 책상 위나 벽에 그들의 사진을 배치해 두고 사진 속의 자아로부터 영혼을 끌어내려 한다. 뇌에는 얼굴을 위한 특별 구역이 있다. 이 영역은 얼굴을 자동으로 읽어들이며 의식적인 마음 속에 결론을 속삭여 준다. 이런 화가 닐슨, 아름다운 여자야, 이 친구는 스티브 로군 등등. 우리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도 얼굴을 인식하며, 얼굴에 담긴 신비는 우리 아래에서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간다. 이 효과는 얼굴의 네 가지 위대한 영역(해부학, 개체성, 표정, 아름다움)에 백 라이트를 비추어 강조하는 동시에 혼란스럽게 만든다²¹⁾. 인간의 모든 얼굴은 다르다. 지구상에 60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얼굴의 수는 우주에 존재하는 소립자의 수를 능가할 것이다. 얼굴은 신체상의 세례이다.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꾼 사람은 종종 자아의 일부를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얼굴 인식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한순간에 남자의 얼굴과 여자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얼굴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작가나 형사에게는 애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얼굴은 신비로운 신호 발생 장치이다. 현실에서 얼굴은 놀라운 깊이와 무한한 색조를 띤 메시지를 발산한다. 우리는 잃든 좋은 끊임없이 이 신호에 의지한다. 우리는 명료하게 표현할 수 없는 언어를 읽고 있는 것이며, 아마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런 신호를 가져와 내보낸다. 속임수와 기만은 동물 사이의 대화에 만연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침팬지까지도 얼굴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얼굴은 궁극적인 진실인 동시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이기도 하다.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 왔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얼굴의 아름다움에 담긴 매혹의 힘을 추구한다. 아름다움은 예로부터 언제나 수수께끼였으며, 아름다움이 발산하는 눈부신 빛은 많은 술가들을 매혹시켰다. 과학은 아름다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묘한 조합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고, 학자들은 왜 아름다움이 중요한지,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연구하고 있다. 얼굴에 관한 많은 미스터리는 얼굴 자체에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 속에 있다. 우리가 얼굴에 반응하고, 얼굴을 내보내고, 숨기고, 장식하고, 개조하려고 애쓰는 방식에 있다. 거울에 비친 얼굴에는 비밀이 담겨 있고, 문신을 새긴 얼굴, 배우의 얼굴, 독재자의 우상화된 얼굴, 신의 얼굴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다. 얼굴은 훌륭한 껍질이며,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과거 2,000년 동안 알아낸 것보다 훨씬 많이 알아냈다. 우리는 얼굴이라는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고, 이 지도

20) 얼굴의 미학

21) 얼굴

에는 상상도 못할 놀라움이 담겨 있다²²⁾.

이와 같은 인상학의 내용은 인재 활용의 측면에서 실용적인 활용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큰 지혜인 인상과 관찰법의 활용은 인재 식별과 관리 기술을 다룬다. 辨經에 나타난 인재 변별기술의 방법과 원칙은 체격, 외모, 도덕과 직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개인의 특성을 아는 知人 또는 識人의 방법은 성격에 따른 인재의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고 장단점을 바로 알아서 재능과 능력에 따른 배치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격을 고루 갖춘 인재의 구별법이 중요하며, 이때 동원되는 것이 인상과 관상에서 취급하는 전신의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²³⁾.

3. 생물진화론적인 측면에서의 신체 형태의 의미

인간의 몸은 아무리 단순한 구조라도 인간이 만든 어떤 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생물진화학을 연구하는 일련의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왜 인간이 온갖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관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의 입장에서, 신체의 각 부분들은 어떤 목적 즉,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며, 신체 전체도 어떤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므로 인간을 대상으로 삼는 의학도 신체 형태와 함께 진화와 관련되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⁴⁾.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표정, 몸짓, 자세, 몸장식의 사소한 변화에도 몹시 민감해진다. 분석보다는 직관에 의하여 즉각적인 반응으로 예민해지는 것이다. 몸읽기(body watching 또는 body reading)의 인간 신체의 형태 관찰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행해지는 인간 생물학이다. 진화적으로 두 발로 일어서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신체가 여러모로 미묘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직립의 '걸어다니는 원숭이(walking ape)'는 진화적으로 성공한 후, 원시 시대 이래로 인체 형태와 기본적인 행동은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놀랍게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체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살펴본다 해부적인 구조, 생리기능, 진화와 성장 등의 문제를 알게되고, 이런 자연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적인 문제를 인간의 형체적인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²⁵⁾. 즉, 사회문화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도 인체의 외형적인 입장에서 보면 거대집단에서의 차이점을 부각하려는 '개성의 표상'과 집단 내부의 다른 구성원에게 동질성을 보여주려는 신체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집단에 대한 충동이나 충성'으로 구분되어 관찰된다.

진화와 관련된 형태관찰의 핵심은 두뇌의 문제이다. 복잡한 인체 구성이지만, 그 진화 과정을 고찰하면 복잡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보다 쉽게 파악된다. 인체의 좌우대칭과 두화(cephalization)는 진화와 함께 형성되었다²⁶⁾. 하나의 뇌만 가지고 진화한 포유동물의 머리는 점점 감각기관들이 모이기에 편리한 장소로 발달하였

고, 그에 따라 인체의 최상부인 얼굴의 형태가 결정되어 지구에서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지형종의 하나가 되었다²⁷⁾.

그리고 두뇌에의 관심은 진화론에 따른 심리론적인 접근까지 보이고 있다. 인간과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다른 동물이 생물학적인 연속체의 일부라는 것이 점점더 분명해지며, 드디어 영장류의 지배 과시 등의 행동에 대한 진화심리학의 접근까지 보이고 있다²⁸⁾.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뇌가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얼굴 인식프로그램을 개발할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뇌가 얼굴을 인식하는 3단계에서, 첫 단계는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뇌 뒤쪽 영역이 활발히 활동해서 얼굴의 주름살 같은 특징을 감지하고, 두 번째는 귀 뒤의 오른쪽 방추회가 활성화되어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이미 저장된 기억을 재생한 자료와 비교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전방측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파악된 얼굴과 개인정보를 결부시켜 최종 판단한다. 여기서 뇌는 친숙한 얼굴일수록 얼굴의 작은 세부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진화론적인 연구의 발전은 동물적 본능에서 인간의 특징을 관찰하게끔 되었다. 도시생활을 하는 현대 인류의 갖가지 성향들을 동물의 행동양식의 관점에서 관찰 분석하고 거기서 인류의 특징을 변별하는 생물진화론적인 연구는 그 착상과 분석에서 탁월한 묘사로 여겨진다²⁹⁾. 인간 신체의 생김새와 행동 양식의 특징을 인류가 진화해온 역사에서 그 증거를 찾아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여자는 진화과정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이 변화는 남자보다 훨씬 극적이고 미묘하여 다른 영장류 암컷의 많은 특징을 능가하여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여자의 신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부위에 대한 연구는 여성 신체 부위가 각기 나름대로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 진행해온 과정과 함께 양육적 기능과 성적 기능의 본질을 알게하는 것이다³⁰⁾. 이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인간 사회의 생존과 투쟁, 계약과 배신,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하게되어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함께 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물진화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관찰법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몸짓언어 영역까지 살펴보게 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보디랭귀지, 시네르골로지, 털이 있다. 20세기 말부터 몸짓(body language)으로 상대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진화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신체 부위별, 상황별에 따른 다양한 보디랭귀지의 의미를 생물학과 심리학까지 동원하여 실생활의 적용으로까지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³¹⁾. 누군가 지적을 해주면 분명히 눈에 뛰는데도 평상시에는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 보디랭귀지에는 많다. 보디랭귀지 교육은 우리 인간의 뇌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관동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얼굴표정, 몸짓, 머리, 시선과 자세 등의 몸동작은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고 상대의 진실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22) 얼굴
23) 변경
24)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25) 바디워칭
26) 진화로 본 인간

27) 우리몸 기생생물에 대한 관찰노트
28) 부자
29) 털없는 원숭이
30) 벌거벗은 여자
31) 보디랭귀지

특히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까지 인정되고 있다.

언어외적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하는 전문가인 필립 튀르세는 얼굴과 몸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해 분석하는 시네르골로지(Synergologie)를 창안하였다. 눈썹, 눈, 코, 입, 목, 팔, 다리 등의 순식간의 움직임으로 말과 행동에 앞서서 먼저 솔직하게 말하는 몸짓언어의 무의식적인 코드를 읽어내는 방법이다. 시네르골로지(Synergologie)가 중요한 것은 정적인 신체의 형태 모습을 능가하여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과 유혹의 핵심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더불어 이 유혹은 트릭이 아니고, 논리적인 과정으로 충분히 설명된다는 사실이다³²⁾. 얼굴과 몸의 무의식적인 몸짓언어는 어린시절에서 익히는 제스처와 몸짓으로부터 유래하며, 잠재의식적인 이미지와 연계되기 쉬우므로 부정적인 장벽을 견어내는 것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첩경이 된다. 따라서 노력여하에 따라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몸짓언어의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하는 텔(Tell)은 포커게임에서 들고있는 패에 따라 플레이어들의 표정, 몸짓, 버릇 등을 의미하는 포커텔에서 유래하였으며, 단순한 몸짓만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이나 곳마음을 드러내는 말투, 옷차림, 자세, 눈짓, 걸음걸이, 음성의 높낮이, 생김새, 땀, 홍조현상, 담배를 쬐는 방식 등의 모든 표현 행위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런 사소한 변화에 담겨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는 전과 비교할 수 없게 넓고 깊어진다. 우리는 텔을 통하여 그 사람의 감춰진 속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³³⁾.

인간의 몸짓언어에 대한 관심은 결국 사회적인 분야로 연계되어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며, 결국 얼굴 표정의 의미는 사회적인 성공과도 연계된다. 얼굴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처럼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성공을 부르는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첫 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6초 정도라고 하며, 첫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로 외모, 표정, 제스처가 80%를 차지하고 목소리의 톤, 말하는 방법이 13%, 그리고 인적이 7%라고 한다³⁴⁾. 이처럼 인간의 표정은 사회적인 존재의 의미부여에서 중요한 것이다.

결 론

보다 더 나은 望診 차원에서 신체 관찰의 의의와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생물진화론적인 입장, 인상-관상학적인 입장, 한방의 전신형태진단적인 입장의 상호 교류를 통한 신체 형태 관찰법의 '발상의 의미'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의학에서 전신형태 진단은 변증시치의 핵심으로 개체생리병리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다루어져왔으며, 전신형태에 대한 유형화의 작업을 거쳐서 실용적으로 활용되었다. 인상학은 신체 형

태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발상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특히 얼굴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을 진화의 산물로 여기는 생물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신체형태의 관찰은 인간 생리-심리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핵심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여지며, 심지어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몸짓언어의 영역에까지 확대 연구되고 있다. 앞으로 인간 신체의 부위별, 동작별 의미를 해석하는 통합적인 다양한 방안이 강구됨으로써, 인간 개체의 특성을 진단하는 보다 나은 길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4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2004AA103)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 진단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권5호, 2002.
2.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 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섬계의 형태체질론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권 1호, 2004.
3.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장남의 형태체질론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권 2호, 2004.
4. 김경철. 靈樞 陰陽二十五人篇 知人法에 나타난 認識과 思考方式의 形成要因에 대한 體質構成論의인 考察.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권 5호, 2004.
5. 윤길영. 동의학방법론 연구. 서울, 성보사. 1983.
6. 吳國定. 內經診斷學. 서울, 대성문화사. 1983.
7. 강주헌 역, 필립튀르세 저. 유혹 그 무의식적인 코드. 서울, 나무생각. 2005.
8. 김기준 역, 도변정 저. 관상수상체형으로 보는 건강진단법. 서울, 홍익재. 1993.
9. 김석희 역, 데즈먼드 모리스 저. 털없는 원숭이. 서울, 영언문화사. 2001.
10. 김태석 역, 령정진 저. 변경. 서울, 더난출판. 2003.
11. 김형태. 진화로 본 인간 I. 서울, 경희한의대 생명과학연구소. 영인본.
12. 무진미래연구원 역, 진담야 저. 상리형진. 서울, 도서출판 황금시대. 2002.
13. 박태선 역, 피터콜릿 저. 몸은 나보다 먼저 말한다. 서울, 청림출판. 2004.
14. 서형정 역, 앨런피츠 바바라피츠 저. 보디랭귀지. 서울, 베텔스만. 2005.
15. 송병기 역, 송강 저. 형상진단. 서울, 의성당. 1997.
16. 안정희 역, 대니얼 맥널 저.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3.
17. 윤명중. 얼굴의 미학. 서울, 동학사. 2001.
18. 이경석, 서지원 역, 데즈먼드 모리스 저. 벌거벗은 여자. 서울, Human & Books. 2004.
19. 이규범 역, 데즈먼드 뮌리스 저. 바디워칭. 서울, (주)범양사출판부. 1986.

32) 유혹, 그 무의식적인 코드

33) 몸은 나보다 먼저 말한다

34)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

20. 이상근 역, 리처드 코니프 저. 부자. 까치, 2003.
21. 이은주 역, 로버트 버크만 저. 우리몸 기생생물에 대한 관찰 노트. 서울, 휘슬러. 2004.
22. 정연아. 성공하는 사람에겐 표정이 있다. 서울, 명진출판. 1997.
23. 주선희. 얼굴경영. 서울, 동아일보사. 2005.
24. 최재천 역, 랜덜프네스 조지윌리엄즈 저. 서울, 사이언스북스. 1997.
25. 황현규. 한번보고 사람을 아는 법. 서울, 태학당. 1994.